Ⅴ. 結論

○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高度成長經濟의 패턴을 유지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의 성숙을 위한 構造調整의 과제를 지연해 왔으며 이러한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實物經濟와 金融經濟의 균형적인 발전을 등한시 해 왔음. 이에 따라 산업간 발전의 심각한 不均衡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안정성장기로의 이행과정에서 겪었어야 할 여러가지 어려움을 한꺼번에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金融危機에 따라 이러한 취약한 경제구조에 의해 자구력이 떨어진 금융산업을 출발점으로 산업의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o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은 投資, 市場占有率, 賣出額의 확대와 같은 양적 성장을 주된 목표로 해 왔으며 자발적인 構造調整을 통한 성숙한 경제로의 이행을 서두르지 못했음.

○ 최근 株價, 換率, 金利 등에 관한 심각한 금융불안요소의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급기야 현재 IMF 救濟金融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율에 대한 불안요소는 어느정도 진정될 전망이나 IMF의 요구사항에 따른 외압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국내 자금경색 해소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음.

- 현재 IMF는 不實 金融會社에 대한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破産·整理 등을 권고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o 특히 IMF에 의해 종금사, 은행 등과 같은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構造調整이 선행될 것으로 보임.

- 국내 자금경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 不實債權의 發生으로 부터 일어나는 불안심리를 하루 속히 진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임.
  - o 이를 위하여 不實債權整理基金, 預金保護基金, 保險保證基金, 證券投資者保護基金 등의 확충과 통안증권, 국공채 중도환매 등 시중자금 유입을 위한 증시안정 대책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保險産業은 타 금융산업에 비해 최근의 金融危機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최근 금융환경변화의 급작스러움을 고려해 볼 때 스스로 기업 내·외부적인 構造調整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우선, 이러한 金融不安期에 단기적인 자산운용상의 불안요소를 줄이는 經營戰略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금융환경의 급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기업 내부적인 構造調整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o 構造調整이란 生産費 節減 등과 같은 비용절감의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의 再評價 및 사업구조의 合理化 등과 같은 새로운 사업방향 및 사업의 비전을 조정하는 것임.

- 기업 외부적인 保險産業의 構造調整에 대해서도 能動的인 參與者로서 임할 준비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